

## 유방 절제술을 경험한 중년 여성의 체험연구

신 경 림\*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여성에게서의 유방암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특히 유방암은 4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기 여성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 한국인의 암등록 조사 자료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남녀 구별없이 암의 발생빈도는 4.4%로 제 6위에 해당되며, 40대, 50대, 60대는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93년 전체 사망자의 사인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여성암에서만 유방암은 발생 빈도도 10.0%로 자궁 경부암, 위암 다음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보고서, 1993)

유방암의 원인은 현재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유전성, 환경성, 호르몬영향, 영양적 요소 등의 추후성 인자들이 제시되고 있으며(Cole, 198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 양식의 서구화로 고지방, 고칼로리 식이로의 식생활 양식이 변화되고 있고, 임신기피, 수유기피, 독신자 증가 등도 유방암 발생률의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방암의 치료법으로 전체 또는 부분 수술 요법, 화학

요법, 호르몬제 투여, 방사선 요법 그리고 면역 요법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여경수외, 1993).

그러나 이렇듯 유방암에 관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법은 다양하게 개발되었고 앞으로 첨단 과학의 발달로 진보 일로에 있으나 유방암 및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경험을 다룬 서술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서 이에 대한 심층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유방은 단순히 수유나 성적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 유방 상실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상실의 요인이 된다고 보여져 이에 대한 총체적 간호가 절실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실제 유방절제술을 한 여성의 체험을 연구한 문헌이 부족하고, 임상에서도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절제술 후의 관리나 총체적 간호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유방절제술의 체험을 이해하고, 유방절제술을 한 중년 여성이 체험하는 본질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작업이 선행됨으로써 그들을 위한 전인적 간호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석학적인 접근법을 이용하여 자료수집, 자료분석, 해석과 경험의 개인적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반성을 위해 해석학적 과정을 따르고자 한다.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 II. 본 론

### A. 벤 매넨(Van Manen)의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자는 유방절제술을 체험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상학, 해석학 그리고 언어학을 종합적으로 사용한 벤 매넨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벤 매넨은 후설의 후기 철학의 영향을 받은 메를로 폰티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으며 현상학적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현상학적 연구는 체험을 연구한다.
- 현상학적 연구는 의식에 나타나는 대로의 현상을 해명한다.
- 현상학적 연구는 본질을 연구한다.
- 현상학적 연구는 체험적 의미를 우리가 겪은대로 기술한다.
-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인간과학적 연구이다.
- 현상학적 연구는 사려의 주의 깊은 실천이다.
-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탐구한다.
- 현상학적 연구는 일종의 詩作활동이다(벤매넨, 1990; 신경림의 역, 1994).

벤 매넨은 현상학적 연구와 기술을 하는데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특수한 단계를 설명하였으며 그 단계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 <표 1> 현상학에 있어서 벤 매넨의 방법론적 개략

1. 체험의 본질에 집중 :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서의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 1) 단계 : 현상을 지향
  - 2) 단계 : 현상학적 질문형성
  - 3) 단계 : 가정과 선이해 설명
2. 실존적 조사
  - 4) 단계 : 있는 그대로의 경험탐구-자료의 일반화  
개인적 경험을 출발점으로 사용  
언어적 자원 추적  
다른 사람들로 부터 경험적 기술 수집  
표본추출  
셋팅  
자료수집  
신뢰도, 타당도 확인  
인간 참여도에 대한 고려  
예술, 문학작품에 묘사된 것 수집

- 5) 단계 : 현상학적 문헌참고
3.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반성
    - 6) 단계 : 주제분석
      - ① 생활세계에서 묘사된 주제적 측면을 노출
      - ② 주제진술 분리
      - ③ 언어적 변형 구성
      - ④ 예술작품에서 주제 진술 수집
    - 7) 단계 : 본질적 주제 결정
  4.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글쓰기
    - 8) 단계 : 참여자의 일상언어에 집중
    - 9) 단계 : 예제의 다양화
    - 10) 단계 : 글 쓰기
    - 11) 단계 : 글 고쳐쓰기(벤 매넨, 1990)

### 1. 체험의 본질에의 집중

체험의 본질의 집중에는 현상을 지향하는 단계, 현상학적 질문 형성단계 그리고 가정과 선이해 설명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현상학적 연구에 적절한 주제는 “세계안에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체험의 핵심적 본질을 질문함으로써 결정된다(벤 매넨, 1990).

벤 매넨의 방법의 현상학적 연구주제는 본원적 경험과의 접촉을 되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메를로 폰티(1973)는 체험의 현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세계에 대한 기본적 경험을 다시 일깨움으로서 세계를 보는 법을 다시 배운다는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후설(1952)은 이처럼 체험에 관한 불변의 관심사로 돌아가는 것을 ‘사물 자체로’라고 표현했다. 그것은 체험으로 충만되게 하는 것으로 그 체험이 반드시 상기시켜진 살아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험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 핵심적 측면을 가능한한 해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형성된 질문은 ‘유방절제술을 한 중년여성의 체험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의 과제는 유방 절제술을 경험한 여성의 체험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체험의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계점은 가정, 편견; 현상에 대한 선이해(preunderstanding)를 판단 중지(bracketing)하며 설명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편견을 반영하거나 가정을 정당화하는 것이 나타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왔다. 판단중지의 과정은 연구자와 관련된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진 연구자에게는 중요하다. 판단중지하는 작업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자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숙고하게 했다. 연구자는 가정과 편견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중지를 시작했다. 연구간행물의 사용이나 기존에 있는 기술과 잔여의 이용은 판단중지 하는데 또한 도움이 되었다. 면담시 개방형의 폭넓은 현상학적 질문의 이용과 묘사적인 질문법, 분류등을 통해 연구자의 지식을 판단중지하도록 노력하였다.

“판단중지”를 위해 먼저 연구자 자신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이 도움이 되었다.

1. 연구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무엇인가?
2. 어떤 개인적인 신념을 갖고 연구에 임하는가?
3. 내가 지향하는 연구의 대상에 대하여 내가 미리 아는 바는 무엇이며, 이 앎은 실제로 연구하게 될 나의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 연구자의 가정

1. 중년기의 유방절제술을 한 여성들은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 유방절제술은 다른 부위의 신체 절제술을 한 것과는 다른 경험일 것이다.
3. 중년기 여성에게 현상학적 개방형 면담을 하므로서 유방절제술에 대한 경험의지는 살아있는 체험서술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4. 유방절제술 후 증가된 민감성에 따른 감정, 개인적 이해를 위한 여성의 경험적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5. 유방절제를 한 중년 여성의 기억에 대한 토의를 통해 반성과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더 폭넓은 인식과 경험의 이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연구자의 선이해

Oiler(1982)는 경험을 반성할 때 선이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것은 곧 판단정지이며 체험을 보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은 이미 알려진 것을 믿는 개인의 옆에 있거나 정지해 있어야 한다. 각 개인의 경험은 그들 각자에게 독특함을 인식해야하며 연구자의 경험 역시 독특한 것이다. 어떠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연구자의 사고, 지각, 감정을 기록하는 것을 매일매일 개인 일지를 연구시작과 더불어 연구가 완결될 때까지 계속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의 본질이 연구자가 가능한한 적은 편견과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완전해질 때까지 심층 문헌고찰 하는 것을 억제했다.

## 2. 실존적 조사

### 있는 그대로의 경험 탐구

현상학적 탐구는 개인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며 연구자 자신의 생활경험을 직접 접근할 수 있다. 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일 수 있는 한에서 현상학자는 특정한 경험적 의미들을 반성적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어떤 현상에 관한 자기자신의 경험의 구조를 인식함으로써 연구자는 현상에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의 모든 다른 단계들에 접근하기 위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벤 매년, 1990).

본 연구자가 연구주제와 관련되어서 떠오르는 나의 개인 경험은 우선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허탈감이었다. 중년기 여성으로서 개인적, 가정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삶의 충실을 기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했던(박사학위를 마무리 짓는) 어느날 자궁적출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감정없는 한마디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눈물만 쏟아져 내렸고, 빠른 시일내에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에 마치 나의 삶의 마무리 짓기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졌으며, 그로 인해 나에게 주어졌던 일들을 한가지 한가지 정리하면서 수술에 임했다. 수술 전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간호사로서 체험하지 않은 이론적인 지식으로 가득차 있던 자신을 발견했고 나의 그런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나를 정리하기 위해서 원고지에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수술을 받기위해 수술방으로 cart에 실려 들어가면서 나는 마취를 통해서 서서히 가슴이 답답해움을 느꼈고, 점점 의식이 흐려졌을 때 보통 죽음 직전의 “숨이 걸린다는 것”을 수술 후 한참되어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술후 나는 여성으로서 매월 있어야 하는 생리의 멈춤과 더불어 갑작스런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의 충격은 때 아닌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흔히 이야기 하는 갱년기의 달아오름을 느끼게 되었다. 문득 얼굴이 화끈해오고 가슴이 답답해서 시시때때로 문을 열어 놓고도 잠을 잘 수 없었을 때는 무척 괴로웠다. 그리고 삶에 대한 불안함과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만만하던 삶의 태도가 누구러지면서 입과 몸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조심하게 되었으며, 요즘도 나는 지나가는 날들을 바라 보면서 덤으로 얻은 삶의 방식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가끔 느낀곤 한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나는 여성만이 간직한 신체 부분인 유방수술을 한 중년기 여인의 체험은 간호사의 한사람 그리고 여성으로서 어떻게 간호에 임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와 절친한 친구

가 그녀의 어머니와 이모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신데 대하여 늘 불안해 하면서 그녀 자신도 정기적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을 보고, 더욱 “유방절제술”의 연구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경험은 연구자인 본인의 개인 일기에 기록되었고, 연구착수시는 물론 연구가 완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 어원의 추적

어원에 주목하다 보면 그 본래 원천인 체험과 생생한 연관을 아직 갖고 있던 때의 본래적인 생활 형식과 만나게 된다(벤 매넨, 신경림 역, 1994). 이것은 주요 단어의 근원을 추적하기 위해 언어적 자원과 사전을 통해 수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인은 ‘중년기’ 그리고 ‘유방절제술’의 어원을 추적하기로 하였다.

중년(中年) : 청년과 노년 사이의 나이. 마흔살 안팎의 한창 일할 때(이희승, 1994)

중년기 : 청년과 노년의 중간시기(Oxford Advanced New Edition, 1989)

: 약 40세에서 60세 까지의 삶의 기간(Webster's Ni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1990)

: 중년의 시기(이희승, 1994)

中年期 : 中:물건의 가운데를 나눈 모양

年:곡식을 파종해서 수확까지 한바퀴를 돌았다 해서 한해를 뜻 한다.

期:그 때 그날이 다시 왔다.

일생을 기로 나눌 때 가장 중간이다.

유방 : 포유 동물의 흉부 또는 복부에 있는 피부의 융기, 중앙에 젖꼭지가 있고 그곳에 젖샘이 열려 있음. 사람은 흉부의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여자의 것은 연령 및 시기에 따라 그 크기와 모양이 여러가지며 분만후 일정한 기간 동안 젖을 분비함. 젖. 젖등이.(이희승, 1994)

乳房 : 乳:아이가 어미의 젖구멍에 매달린 모양. 그래서 손으로 주물러 젖을 내다(사람이 대하는 생명의 첫 구멍이다)

房:내실이 아닌 대청의 곁에 창호지를 낀 방.

양쪽 곁에 붙어 있는 것

절제술 : 수술의 한 방법, 어떤 장기나 조직의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희승, 1994)

절제술(切除術)

切 : 끊는 도구와 끊는 모양의 합침

除 : 칼로...하고 가즈런히 하다

術 : 벗겨내서 변화를 행하다

手術 : 손써서 벗겨내서 변화를 행하다

#### 다른 사람들로 부터 경험적 기술수집

벤 매넨에 따르면, 현상학적 연구에서 강조되는 것은 “체험의 의미”이다. 현상학적 연구의 초점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빌리는 것이며, 인간 경험의 전체 맥락에서 인간경험 측면의 중요성이나 깊은 의미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하기 위해 그들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다(벤 매넨, 1990)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진솔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표본추출

연구참여자는 유방절제술을 한 중년여성으로 임의표출을 하였다. 한국남부의 중소도시인 I시에 위치한 W 대학 병원의 간호부와 유방수술 전문의의 협조를 받은 후 임의표출된 참여자들에게 먼저 전화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나타낸 6인의 참여인과, 그후 참여인이 원하는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는데, 참여자 5인은 그들의 집에서 만났고, 1인은 집보다는 제과점에서 만나기를 원했다. 만날시간과 장소는 참여자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으로 참여자를 좀더 이완시키고, 편안함을 도울 수 있도록 하므로써 자연적이고 또 참고가 되는 통찰력을 산출하기에 더욱 좋을 것으로 보고되었다(Brookfield, 1990).

#### 자료수집

현상학적 연구에서 가장 먼저 할일은 정확한 서술이고, 상황 그 자체가 서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이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험의 서술을 통해서이다.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어느 한 경우에는 참여자의 배우자, 그리고 친정어머니께서 심층면담에 참여하므로써 참여자의 체험담서술을 더욱 생생하게 이끌어갔으며, 또 참여자의 체험 내용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심층면담은 1994년 2월 부터 1995년 2월까지 1차와 2차에 걸쳐 수행하였다.

1차면담은 1시간에서 4시간정도 소요되었다. 2차면담은 옮겨진 자료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1차 면담내용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가 난처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Brookfield(1990)의 “이완된 환경”을 유지하므로써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신뢰를 구축토록 하였다.

면담시작은 폭넓은 일반적인 개방형 질문(open ended)인 “유방절제술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로 중년여성의 유방절제 경험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면담내용을 녹음하였고, 글로 옮겨 쓴 후 디스켓에 저장하고, 복사된 것은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면담이 글로 옮겨진 것은 본 연구인과 연구 보조요원이 하였다. 면담내용은 디스켓으로 옮기는 사람과 연구자가 같이 주의깊게 들었고, 그 다음 2차면담을 계획하였다. 면담, 잡지, 얘기에 대한 자료분석은 주제의 구조, 공동주제,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 핵심적 주제를 확인하기 위해 벤 매년의 방법을 따랐다.

####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인

질적인 과학연구의 방법론적 정확성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4가지 논점-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상태(neutrality)를 고려해야 한다. (Guba와 Lincoln, 1981)

첫째, 사실적 가치는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지각된 경험이나 인간현상에 대한 발견속에 존재한다. 경험에 대한 서술이 경험을 한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가 일차적으로 고려할 점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 결과의 신뢰성에 일치해 왔다. 둘째, 연구상황 외부의 맥락에서 자료의 “적절성(fit)”에 의해 평가되는 질적연구에 대한 적용성이다. 셋째, 결과에 대한 일관성은 자료수집과 타당도에 기여하는 예술작품에 대한 실존적 연구의 다양한 방법에 의해 생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면담동안 자료수집을 통하여 일관되었으며 연구가 끝났을때 연구자에 의해 확인되어졌다. 자료분석은 첫번째 면담후에 시작되었으며 두번째 면담동안 계속되었다. 예외적인 결과(Preliminary)와 반복(recurrent)과 실존조사를 통한 일관된 모습이 분배되었다. 여성들과의 면담결과는 타당도가 인정되었으며 신뢰성이 발견되었고, 문학, 드라마에서의 실존조사의 다른 측면에서의 결과에서 일관성이 발견되었다.

넷째, 중립상태는 연구과정에서 편견으로부터의 자유와 관련된다. 과정에 대한 기술과 명시를 통해 연구자는 개인적 편견을 중지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질적 연구의 신뢰도는 방법이 “확인과 순환의 문서화, 정확성, 일관성이나 비일관된 형태, 주제 형태로서, 가치, 세계관, 경험, 유사하거나 다른 맥락에서 확인된 다른 현상”(Leininger, 1985)에 초점을 잘 맞추었는지와 관련된다.

문장을 명백히 하려고 탐색하는 동안 더 나은 서술과 정교함을 위해 참여자의 서술을 통해서 풍부함과 질을 증가시켰다. 연구자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현상의 관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이용은 정교함, 명백함, 결과를 지지하는 것을 도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된 결과가 서술되었으며 연구결과를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읽힘으로써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 연구참여자에 대한 고려

연구자는 연구의 감수성이 인간의 권리(Sobel, 1979)에 대한 보호를 참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이것은 연구진행에 대한 계획에서 일차적으로 고려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Munhall(1988)의 “동의과정”을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사건이 어떻게 계속되는지에 대한 유방절제술을 경험한 여성의 사고와 연구의 노력과 관련하여 각 면담동안 연구참여자에게 보조를 맞추었다. 또한 연구자는 면담, 보조를 맞춘 질문, 서술, 지지에 대한 참여자의 요구에 대한 사정에 근거한 개인 자료를 공유 할 수 있었다.

참여자의 면담과정은 보호받았고 연구에 의해 노출될 위험이 없었고 연구로 인한 이득과 해로운 결과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참여자는 이해하였다. 인간권리와 보호에 대한 이러한 염려는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동안, 동의하는 과정동안, 참여자에 대한 사전연구를 하는 동안, 참여자를 의뢰과정동안 옹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처음에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동안 어느때라도 철회할 수 있는 동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서면화된 동의서를 받았다.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해 서술된 동의서를 주고, 첫번째 면담을 기술하는 동안 유방절제술의 관련된 내용물, 잡지와 기술을 나누었고, 두번째 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복사물을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문학과 예술로부터의 경험적 묘사

문학작가 자신의 묘사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연구자는 참여 여성의 경험에 대한 그들의 묘사를 돕고, 또는 그 경험을 상기시키는 예술적 실례를 그들이 나눌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에 대한 묘사로 보이는 어떤 시나, 어떤

노래, 어떤 특별한 책에 매우 쉽게 관련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상학은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친숙하고 가장 자명한 것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우리의 직접적인 일반적 경험에 호소한다. 인간행위, 행동, 의도, 경험 등은 우리가 생활세계에서 마주치는 그대로 되살리는 생생한 기술(텍스트)을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까닭에 인간과학자는 시인, 작가, 예술가, 카메라멘 등의 작품을 즐겨 이용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자료속에서 상황속의 인간으로서 인간존재를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작품속에서 인간경험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압축하고, 초월된 형태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벤 매년, 1990).

벤 매년(1990)은 훌륭한 문학, 시 또는 다른 예술적 형식들은 현상학적 실제 통찰력 증가를 되돌리는 경험에 근거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가 문학을 참고하는 이유는 문학과 다른 예술적 근원은 우리의 개인적 매일매일의 경험들의 순환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표출하는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문학에서 서술된 현상은 우리의 선입관에 해당하는 많은 주제 또는 질문의 해석적 방법에 이미 표현된 자료를 포함한다(벤 매년, 1990).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학적 깊이를 지연시킨 연구자는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이 완전할 때까지 고찰하였다. 동시에 중년여성 및 유방절제와 관련된 다른 분야로부터의 문학 뿐만 아니라, 간호문헌의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시 부문

시는 생생한 진실감을 잃지 않고 표현될 수 없는 인간 경험의 어떤 측면을 언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벤 매년, 1990).

김태운(1993)은 그의 시 「여자의 이름」에서 중년여성을 기술하였다.

얼굴에 늘어가는 주름살을 어쩔 수 없어  
고민할 때면  
‘중년여성’, ‘갱년기 여성’  
애교와 아양의 여자스런 예쁨보다는  
돈보이는 중후함.  
고전적인 여성미  
늙음을 한탄하기보다  
지(知)와 덕(德)을 쌓아야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여자의 삶이  
머리카락 숫자 만큼이나  
많은 의미와  
섬세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수필부문

린드버그(1955, 이이환역, 1992)는 그녀의 수필집 「바다로 부터의 선물」에서 중년 여성의 삶을 굴조가비에 비유해서 여성으로서의 그녀의 삶의 경험을 서술하였다.

저자는 삶을, 또는 인간관계의 단계들을 조가비들의 모습이나 특성과 연관시켜 명상한다. “쌍각 해돋이 조가비는 둘만이 완벽하게 닫혀 있는 세계를 상징해 준다. 이 인간관계의 일출기는 낭만적인 관계를 표현해 주지만, 반면 그것은 그 얼마나 닫혀 있는가! 거기서 나아가 굴 조가비는 우툴두툴한 모습과 군집의 모습을 통해 번잡하고 자신보다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사는 중년 여성의 단계를 시사해 준다.”

“여성이 된다는 것은 바퀴통의 바퀴살처럼 중심의 모성행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관심들과 의미들을 갖출것이다. 우리의 생활양식은 본질적으로 순환적인 것이다. 우리의 남편, 아이들, 친구들, 가정, 공동체 등과 같은 나침반의 모든 방향에 의하여 열려 있어야 하고, 쪽 퍼서 드러내 놓고, 거미줄처럼 붙어오는 매번의 바람과 찾아오는 매번의 부름에 민감해야 한다. 이러한 모순적 긴장들의 한 가운데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한편 우리의 생활양식이 제대로 가능하는데 얼마나 필수적인가, 그 한결같은 자세를 우리가 얼마나 필요로 하며, 성취하기에는 얼마나 힘이 드는가.”

굴조가비아 말로 기혼 중년 여성의 생활과 흡사하다. 그것은 삶의 투쟁 그 자체를 기사해준다. 그 구부러진 중에는 작은 조가비들이 달라붙어 있다. 배를 납작하게 깔고 엎드린 울퉁불퉁한 굴은 성장하는 것이 지나는 불규칙성을 지닌다. 그것은 많은 식구들을 수기 위해 하나 하나 차례로 부속 건물을 지어나가는, 마치 내가족이 살아가고 있는 집과 아주 닮아 보인다. “방과 햇간으로 뻗 뻗하던 집이 조금씩 비어가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학교

에 가 버리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간다. 중년에 이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속에 자신들의 위치를 얻었거나 얻기 위한 노력을 그만두었거나이다.” 즉 굴 조가비는 중년층의 어려운 법칙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중년은 인생의 기간중에서 제2의 개화기 또는 제2의 성장 또는 제2의 성년기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기간을 종종 잘못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를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사회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 확장의 시기가 종종 비극적이고 잘못 이해되고 있다.” “즉, 중년은 야망의 조가비, 물질적 부와 소유의 조가비, 자아의 조가비를 떨쳐낼 시기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래서 사람은 중년이 되어야 여성의 본질이 <주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여성은 모든 가정관계들과 인간관계들을 살찌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의 공급자이기도 한데 그렇게 자신의 것이 빠져나가 버리기만 한다면, 여성은 고갈된 상태가 되고 허전한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유방안의 젖이 빠져나간 뒤 다시 채워지듯, 여성도 다시 채워져야 한다는 것 것이다.

여성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쏟아버리기를 권한다. 아이들에 대한, 남성에 대한, 사회에 대한, 영원한 공급자라는, 여성으로서 그녀의 모든 본능을 그녀가 주기를 요구한다. 그녀의 시간, 에너지, 창의력은 기회나 새는 틈만 있으면서 흡족으로 빠져나간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그것도 즉시 주도록 여성은 주전자를 도로 가득 채우는 시간, 정적, 평화 등의 여유를 거의 갖지 못한 채, 자신을 조금씩 목마른 자들에게 쏟아 버리는 것이다.

#### 미술사에서 본 여성의 유방

유방은 미술부분에서도 예리하게 판단되었다. 즉 그리스 미술작품에 나타난 유방의 모양을 조사해보면 처음에는 점시형이 다음에는 반구형이 마지막으로 원추형(圓錐形)이 나타난다. 밀로의 그리스 말기 미술 양식으로 이시기의 특징인 원추형 유방을 갖고 있다. 나라별 시대별로 살펴보면 그 시대가 매우 융성하고 외형적으로 문화의 절정기에 있을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간 퇴폐적인 그림자가 내비칠때 원추형이 다루어 진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절대적으로 젖먹이때 바라본 어머니의 유방이 반구형이므로 모성적 자비심을 나타내기 위해 부처상의 경우엔 때론 반구형 유방이 표현되었다.

그러나 현대화가들의 눈에 비친 여자의 원추형인 유방을 성기의 하나로 보고 성적 대상으로서만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대변하며 특히 한국여성의 실제 유방형

은 반구형인데 비하여 원추형을 선호하는 경향은 서구적 관념을 지향하며 우리가 오랫동안 지녔던 유교적 절제가 사라지고 물질만능을 추구하는 서구문화로 젖어들고 있음을 알수 있다(조용진, 1991).

유방은 여성에 있어서는 아기에게 젖을 만들어 먹일 수 있는 수유기능과 더불어 생식기관들의 주기와 관계가 있어 양육, 풍요, 자비 등 모성을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로마에서는 농업의 여신 케레스(Ceres)가 유방을 3개나 갖고 있고, 그리고 불교의 범종에 유두가 조각되어 있는 것도, 기왓장의 암막새, 솥막새에 도드라진 무늬도 유두를 상징하고 절간처마에 유두가 나란히 붙어 있는 것도, 역시 유방의 상징적이며, 불가의 자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조용진, 1991).

#### 한국적 의미의 유방과 유방암

유방의 상징으로 우리 민속적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 천록, 길몽 그리고 자비의 의미를 나타낸다.

“거북이 사람의 젖가슴을 빠는 것은 길몽”

매우 좋은 꿈, 어려운 일은 해결책이 생기고 귀인을 상면하는 좋은 결과가 따른다. (꿈풀이 북풀이, 여성동아지, 1995)

유방은 하늘에서 내리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배밖에만 나오면 안나던 것이 나와져서 그 천록을 먹고 자라나는 것과 같나니라.” 유방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성한 것으로서 천진한 아이에게는 천지의 감응으로 먹을 것이 생길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대종경, 1995).

동의보감에 의하면 유방암은 근심하고, 노여워하는 마음때문에 생긴다고 했다. 여자가 근심하고 노여움에 속이 상하기를 오래 쌓이면 유방에 멍울이 생겨서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은채 5년, 7년 지나면 종기 같이 자혹색이되고 속에서부터 썩어 허물어 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증상을 유암이라고 한다.

婦人積傷憂怒 乳房結核 不痛不 五七年後  
外腫黑 內漸潰爛 名曰乳巖 (外形篇券 3乳)

#### 소설에서 본 유방절제술한 여성의 경험

소설속에서 기본적인 생활경험을 마치 자기가 하고 있는 듯이 경험한다. 우리 자신을 소설의 주인공과 동일시 하면서 우리는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느낌과 행동을 체험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황, 사건 감정등을 체험할 수 있다(벤 매넨, 1990).

신달자의 연작소설(1993) 「성냥갑 속의 여자」에서 101호에 살고 있는 주인공 “영화”는 호된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외로움으로 심하게 상처를 입으면서 유방암을 발견하고, 그리고 유방절제술을 하는 과정의 체험을 세세히 묘사해 놓았다.

“나는 갑자기 미친 듯 소리질렀다. 알았어, 나는 다 알았어. 이걸 너무 가혹해. 이렇게 되어서는 안돼. 나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나의 절망적인 서러움과 아무 관계없이 나의 현실은 비정하게 다가왔다. 눈물을 흘리며 재촬영을 했고, 결과는 유방에 발생하는 선암으로 흔히 말하는 유암이었다. 내 개인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술 날짜가 잡혔고, 결과가 나온 날부터 나는 입원실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 하느님!’

나는 속으로 처음으로 하느님을 불렀다.

그렇지요, 하느님. 이제 앞으로의 내 인생에는 빛나고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일만 있겠지요.

이것으로 나의 불행은 마감된 거죠? 나는 강하게 되려고 있었다.

사람이란 참 불쌍한 존재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적응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인지, 나는 의사의 말에 뭔가 한줄기 기대감이 솟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어떤 희망도, 어떤 오기도, 그 어떤 의지도 모두 바닥이 나 버린 느낌이었다. 심한 가슴에 눈바다에 갈라진 그런 황폐한 두려움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퇴원을 하는 날 나는 가슴의 붕대를 풀었다. 이제 병으로부터 풀려나는 시원함을 맛보면서 풀려 가는 붕대를 나는 바라보았다. 붕대가 다 풀려 나가고 나는 가장 궁금했던 수술 자리가 있는 젖가슴을 바라보았다.

“어머, 내 젖가슴! 내 유방, 내 젖가슴!”

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숨을 죽였다. 울음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만져 보았다. 유방이 없었다. 움푹 패인 한쪽 젖가슴이 소름기치게 섬뜩했다. 나는 그제서야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손을 넣어 가슴의 상처에 손을 대보았다. 딱딱한 수술자국의 느낌이 나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두어번 구토가 나는 것을 억지로 참고 약을 넘긴 나는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는 왼쪽 가슴에 손을 대다가 다시 소스라치게 놀랐다.

마치 가슴 한쪽이 달아난 것을 처음 안 것처럼.

왼쪽 유방이 흔적없이 도려져 나간 허전한 가슴에 손

을 얹고, 나는 다시 두 다리를 꺾고 주저 앉아 소리내어 통곡했다.”

“절대적인 저항이 다시 저 생명의 밑바닥에서부터 강하게 솟아올랐다. 그러나 그 저항은 부풀어올랐던 거품처럼 이내 힘없이 스러졌다. 나는 쓰러지며 눈물없이 울먹였다. 그런 시간이 얼마큼이나 지났는지 잘 알 수 없다. 내가 잃은 것이 어디 유방뿐인가,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었던 젖가슴뿐이었던가. 결국은 남편 하수인도, 가정도 그리고 알 수 없는. 아직은 계산도 되지 않는 내가 모르는 것을 나는 잃고 있을 것이다.

어머님을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답답해 울 뿐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는 해도 왜 이렇게 방향이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삶이 공포스럽기만 했다.”

김도형(1994)의 장편소설인 「비.비.비」에서 여주인공은 유방암의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 결국 암의 전이로 세상을 떠난 작가의 부인으로 실존 인물이었다. 소설의 내용중 다음의 한 표현은 본 연구인이 참여자와의 만남에서도 같이 동의했었던 것이다.

“그녀는 여자는 여자가 되 여자가 아니었다. 별것에 달군 인두로 지져놓은 듯 끔찍한 수술자국 밑으로 딱딱한 갈비뼈가 만져졌다.” 외출을 할 때면 프랑스 수입품이라는, 실리콘으로 된 인조유방을 차고다녔다. “진짜의 젖가슴과 가짜의 젖가슴에서 느껴지는 언벨런스의 촉감이 가져다 주는 섬뜩함이란.”

그래도 혹시나 하고 항암제든 방사선이든 뒤치료를 한두번이라도 받아 둘까 싶었으나 주위에서 말렸다. 보약이나 좀 지어 먹고 몸에 좋은 음식 잘 해먹어 몸을 추스리게 하는 것이 장땡이지, 그렇잖아도 몸에 크게 칼던 환자를 또 한번 초죽음시킬 짓을 왜 하느냐는 얘기들이었다.

내 자신, 여자로서 한쪽 젖가슴을 도려낸 그녀가 애처로웠다. 차마 더 이상의 고생은 안쓰러워서라도 시킬 수 없어 순순히 받아들였었는데 꼭 1년만에 일이 터진 것이었다.

#### 드라마에서의 중년 여성의 유방절제술

TV 연속극 「사랑과 이별」이 본 연구인이 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하고 있을 쫘 방영된 연속극으로 중년의 가정주부인 40대 여인이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겪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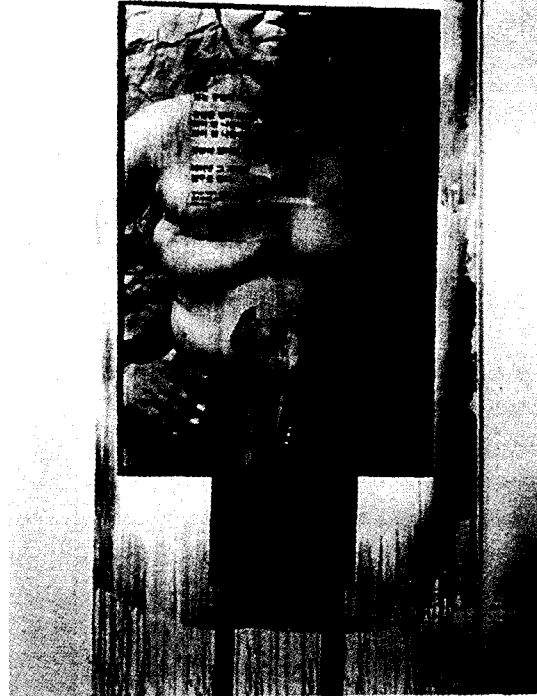
일들을 다룬 내용들은 본 연구에 참여했던 중년 여성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공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작가인 안양자씨는 “김선주”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극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인이 수집한 드라마의 본질적 내용은 재난의 그림자, 불길한 예감, 신과의 약속,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암진단으로 인한 충격, 신께 매달림, 항암치료의 고통, 삶의 가치관 변화, 그리고 홀로임의 재발견이었다.

그림, 조각, 사진으로본 중년여성. 그리고 유방절제술 각 예술 매체(회화, 조각, 음악, 영화등)는 나름의 표현언어를 갖고 있고, 예술 생산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초월된 형상들로 변형된 체험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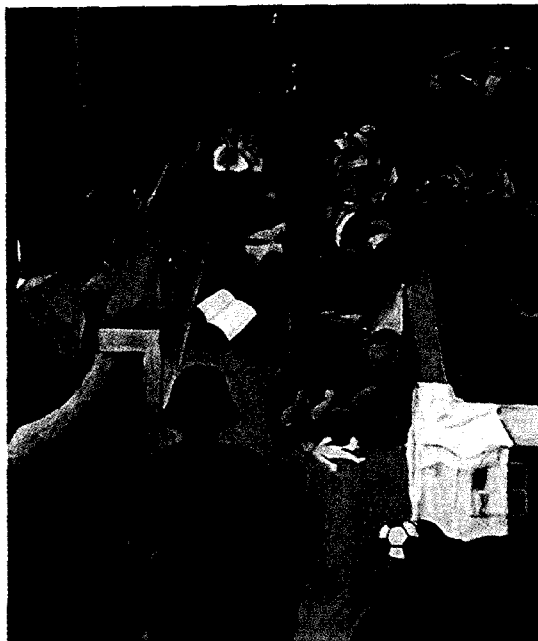
위와 같이 자료수집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 연구는 중년 여성의 세계속에 존재하는 현상과 경험을 서술한다. 이러한 것들은 여성이 서술한 그들의 경험과 함께 심층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여성에 의해 쓰여진 그리고 경험적 서술이 있는 잡지 등을 포함했다.

2. 현상학적 문헌참고

현상학적 문헌의 참고를 위해서 많은 문헌을 고찰했으나 현상학적 문헌은 없었고, 조사연구, 상관관계 연구



박영숙 사진작가의 유방절제 경험을 한 후 제작한 작품



김종례 화가 작품(한국 중년 여성의 나들이 모습)



예술가 메투시카양의 유방절제후의 자신의 흉상

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특성, 중년기의 여성 건강 그리고 유방암에 관련된 연구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고찰하였다.

### 중년기의 특성

동양의 음양이론에 의하면 중년시절은 숲을 의미하고 만물을 성숙해서 거두어 들인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또한 중년은 가을이며 서방으로 태양이 기우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다. 즉, 숲은 경제와 재산의 표본으로써 중년시절엔 먹고 사는 경제가 으뜸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숲의 시절이라고 부른다.

공자는 인생주기를 논어의 위정편에서 “자신”을 비유하여 여섯단계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독립하였고, 마흔 살에 현혹되지 않았고, 쉰살에 천명을 알았고 예순살에 남의 말을 순순히 들었고, 일흔살에 마음 내키는 대로 쫓아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이 단계에서는 마흔, 쉰, 예순이 중년기에 속한다고 본다(論語. 爲政).

불교문헌(天道品, 1990)에서는 수염에 불붙은 듯이, 또는 머리에 불이 붙은 것을 끄듯이 자기 수양을 하면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기로써, 그리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한다. 이 시기는 안으로 충만되는 마음수양의 단계를 의미하는 시기이다. 시모쥬 아끼꼬(1991)는 그녀의 저서 30대의 여성이 알아두어야 할 일에서 “중년기에 처해 있는 여성의 길은 인생의 가장 바쁘고, 험하고, 보람있는 길로써 자신에게는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나오는 때이기도 하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Erikson(1963)은 인간의 발달주기를 8단계로 보았으며, 중년기는 40세에서 60세까지이며, 이시기는 생산성 대 침체성이라는 일곱번째 위기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생산성은 성숙한 성인이 미래 세대를 이끄는 데 관심을 가지며, 자신들의 인생이 저물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통해 지속적인 인생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느끼고,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침체성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밖에 Papalia(1989)는 중년기를 40세에서 65세까지로 규정하였으며, Havighurst(1978)의 발달과업 이론에서는 대략 30세에서 60세까지를 중년기라고 하였으며, 이 시기에 개인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그 절정에 달하며 동시에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도 느끼게 된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중년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의 주기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결정에서 밑을 바라보는 시기로 표현되었다.

### 중년기의 여성건강

중년기 여성건강은 급변하는 사회와 더불어 현실과 복잡하게 직조물 처럼 짜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만 해도 중년기 여성건강에 관련된 자료는 거의 없었으며, 소수나마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폐경’을 중년여성의 삶과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시켰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의료인들과 건강을 관리, 행정하는 사람들은 여성건강의 필요성을 이해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의 의견은 생의학적 모델에 의해서, 즉 중년여성의 건강은 호르몬 체계에 의해서 조종된다고 보고 있다.

중년기 여성은 폐경과 아울러 동반되는 생리적인 능력상실, 신체적인 매력의 상실로 인해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감정에 지배되어 자아 존중감이 약해진다고 보고하였다(이현수, 1985).

생의학적 모델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회는 사회 문화적 특성인 가부장적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중년 여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남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보고 싶은 것을 하고 사회적, 연령적으로 일의 능률이 최고에 오르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서게되는 반면, 우리나라 중년여성은 남편을 통한 대리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 40대가 되면 소모된 듯한 쓸쓸함을 느끼고 불안, 초조함에 휩싸여서(정방자, 1988; 최덕신, 1992; 윤도부, 1993; 김재은, 1983; 김명자, 1989) 삶의 목적을 잃어 버린 자신을 발견하여 복잡한 심리적인 갈등을 겪는다. 또한, 한국 중년 여성은 사회 전반 방대한 무관심과, 부모들로부터 모델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일상생활의 정보인 출판물과 메스컴에 의존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배운 것과 새로운 서구의 이론이 난립하여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있다(정방자, 1988). 한국 중년 여성은 또한 거의 전통적인 갈등문제 즉, 고부간의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 대처 방안에 다양한 대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건강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원희, 1992; 신숙경, 박혜인, 1993).

한국 중년 여성의 건강은 다른 어느 시기 보다 더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의 삼중 역할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정 및 나아가 사회와 직결되는 문제로써 매우 중요

게 대두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년여성의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악성 신생물로 인한 죽음이 3대 원인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유방암은 모든 암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자궁암, 위암 다음으로 여성암 중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궁암, 위암의 발생 빈도는 줄어드는 반면 유방암의 발생률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립의료원 암 등록 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89년도에는 1천 8백 13건, 90년도에는 1천 9백 7건, 그리고 91년 2천 3백 13건으로 3년 동안만도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만수, 1994), 40대 이후 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방암의 원인은 아직 확립된 정설은 없으나, 에스트로젠의 유방세포의 증식, 분화에 영향을 끼치므로 에스트로젠의 영향력으로 인한 암 발생설, 프로락틴과 프로제스테론도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설이었다. 그리고 유방암 발생의 위험 인자로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요인을 들 수 있다(유한영, 안운옥, 1985).

- 1) 유전적인 요인 : 직계 가족내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 2-3배 높아진다.
  - 2) 임신 분만의 관련은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 여성, 낳은 수가 많은 엄마일 경우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 첫 아이를 낳은 나이가 빠르면 빠를수록 발생위험이 낮아진다. : 초경에서 폐경까지의 전 기간 동안 한 여성이 여성 호르몬에 의해 기간이 길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
  - 3) 고 칼로리 음식, 특히 사춘기의 비만이 문제가 된다. : 기타, 경구용 피임약의 복용, 호르몬제 투여, 방사선 조사, 카페인 섭취 빈도,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등이 관여한다.
  - 4) 수유 관련 요인 : 유방이 수유 등의 제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면 암으로 변하기 쉽고, 아이가 많을수록, 평균 수유 기간이 길수록 분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5) 음주, 흡연 : 설이 분분하다.
-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는 외과적 치료, 방사선, 항암, 호르몬 치료 요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유방절제술과 관련된 간호 연구를 고찰해 보면, 우울, 불안, 생활 적응도, 신체상, 그리고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내용들이었다.

유방절제술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면 신체상이나 모습에 대한 악영향, 여성 감각의 소실, 성적매력과 기

능의 감소, 부끄러움과 죄책감 등은 어느 정도 사회적, 정서적 기능장애가 10-50%까지 나타나고, 식욕부진, 수면장애, 삶의 일정한 양상 및 의욕상실이 있다한다(Harris, Hellman, Hendeson & Kinne, 1991).

유방 절제술 환자의 퇴원 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연구 결과 비정상적 우울 범위에 속하는 자가 4% 이었고, 항암, 수술 그리고 방사선 요법을 병행한 경우에 우울정도가 상승했으며 생활의 적응도, 치료완결 여부, 본인의 직업이 우울정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박효경, 1986).

반면, 한경숙(1991)은 유방 절제술 환자의 대응양상과 우울에서 유방 절제술을 한 환자들은 그들의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인 사고와 문제 중심의 양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우울정도는 그리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Wong과 Bramwell(1992)은 유방절제술을 경험한 25명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퇴원 전(1-2일)과 퇴원 후(1-2주후에) 불확실성과 불안(anxiety)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퇴원 후에 특히 불확실성이 높을 수록 불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절제술 환자의 신체상과 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신체상이 긍정적인 군이 부정적인 군보다 생활 적응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태숙과 정민숙, 1984)

질적연구로 유방암 환자의 적응과정을 본 국내연구(정복례, 1991)에서는 유방에 종양을 발견한 이후부터 치료 진행 시기별로 대상자가 겪는 정서적 경험이 변화되어 가는 특정적인 반응을 유형화 해 놓았다. 유방암 환자들은 종양발견 후 진단 전까지 매우 불안 초조해 하였으며, 암 진단을 받은 후 수술 전까지는 절망 상태에 빠지고, 수술 후 보조 치료 전까지는 불안하면서도 약간의 희망을 갖게 되나, 그후 보조 치료 동안에는 질병과의 투쟁의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가 끝난 후에는 희망을 가지고 안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속 재발에 대해 염려하고 불안해 하였으며, 생명 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인생관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

Ali와 Khalil(1991)는 유방절제술을 경험한 이집트 여성과의 면담결과, 연구 참여인들은 완치에 대한 희망, 치료 효율성, 미래에 대한 두려움, 병세와 통증의 진전 등의 다섯가지 요인이 스트레스원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대처 전략으로, 신앙을 갖고, 의료진들을 신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사회지원을 추구하고 그

리고 다른 방향으로 스트레스의 집중을 전환시키는 것 등이 조사되었다.

Northouse(1989)는 50명의 유방절제술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와, 그들의 배우자를 상대로 심층면담을 한 서술 연구결과, 수술 1개월 후의 병원에 있는 환자와 남편들이 보인 주된 걱정은 “살아 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자신의 부인이 유방 한쪽을 제거한 것에 대해 적응을 잘 했으나 몇몇 남편들은 그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환자와 남편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된 것은 감정적인 후원, 자료, 태도, 그리고 종교적 믿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연구에 관련된 대부분의 환자들이 절제술을 받기 전의 시간들이 병원이나 집에 있었던 시간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몇 가지의 또 다른 요소가 수술전에 스트레스를 높였다고 보고했다. 즉,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의 불안감, 수술 일정을 연기시키는 병원측의 제도적 처사,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부족한 자료, 그리고 건강 전문가들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담 등이다.

Hailey, Levine 그리고 Hogan(1988)은 27명의 유방절제술을 경험한 환자가 지각한 정서적, 심리적 측면의 체험을 심층 구조 면접법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다. 이 연구는 유방의 혹(lump)을 발견 했을 때부터 완전 회복을 하였을 때까지 2단계로 나누어서 이루어졌다. 그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여자들의 경우, 유방에 있는 혹을 자신들이 발견했으며 그들 대부분이 또한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주치의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었고, 반 이상이 유방절제술에 대한 프로그램이 건강 전문가들에 의해 미리 준비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방절제술 후에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미래의 환자들을 위해 꼭 있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중년 여성의 건강 및 유방암과 관련된 문헌들은 대부분이 조사 연구나 상관성을 검토한 양적 연구들이었으며, 질적 연구를 통한 심층적인 기술을 한 연구는 소수였다.

유방암절제술 후의 체험은 개인마다 독특하며, 특히 유방의 상실은 여성,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상징성의 소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유방절제술 여성을 대상으로 현상에 대한 인간의 내면을 철학적이고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 3.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반성

현상학적 반성은 주제분석과 본질적 주제결정의 두 단계를 포함한다. 주제분석의 단계는 생활세계에서 묘사된 주제적 측면을 노출, 주제 진술분리, 언어적 변형 구성, 예술 작품에서 주제진술 수집을 포함한다.

벤매넨(1990)에 따르면 현상학 주제들은 “경험에 관한 구조들”이다.(p. 59) 본 연구에서는 테이프에 녹음한 후 옮겨 적고 정당성에 관한 관계를 토의하고 어떤 것을 추가하고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주제를 확인하였다.

벤매넨(1990)은 어떤 현상의 관점에서 주제를 밝힐 수 있는 두가지 접근에 대해 토의했다. 하나는 특징 접근법(highlighting 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행간 접근법(line by-line approach)이다. 특징 접근법은 연구자가 경험에 대해 특별히 참고가 되는 표현 또는 말에 대해 여러번 반복해서 읽거나 또는 듣는 것이며, 반면에 행간 접근법은 문장 또는 말이 경험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참여자가 진술한 모든 문장을 찾는 것이다. 연구자가 현상학적으로 민감한 방법으로 주제를 쓰기 위해 준비하고 특별한 주제들을 분리하기 시작할 때, 연구가는 벤 매넨의 언어학적 변형구성의 단계에 따라 서술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주 언급한 문장을 확인하고 나열하는 행간 접근법으로 주제를 찾았다.

유방절제술을 경험한 중년 여성이 체험한 의미 발견은 다음과 같다.

#### 본질적인 주제

- 우연히 자가 발견한 몸쓸 병
- 질병의 뿌리 추구-天罰, 박복한 여인
- 이별을 예감한 불안감
- 病혼을 통해 본 자기 상실감
- 후원을 통해 본 자기 확인
- 항암제 투약으로 인한 극한 상황-악몽
- 삶의 태도변화
- 삶의 최고가치는 건강임을 인식함
- 홀로임의 재발견
- 살얼음위를 걷는 듯한 나날들의 연속

위의 10가지의 본질적인 주제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현상학적 기술을 하였다. 그리고 문헌과 대중 매체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다양한 현상들을 유방절제술을 받은 중년 여성의 체험과 비교함으로써 반성하였다.

“현상학적 주제들은 경험의 거미줄의 매듭과 같아서 이 매듭을 중심으로 체험들이 쌓이고 따라서 의미있는 전체들로 살아진다. 주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의 “주를 이루고 있는 별과 같다고 보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의 빛을 길잡이로 삼아 의미의 우주를 항해하고 탐험할 수 있다”(벤 매넨, 1990)

주제에 입각한 사려깊은 주의와 함께 연구자는 중년 여성의 유방절제의 경험에 대해서 현상학적으로 쓰기 시작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다음으로 참가자들에게 면담 도중에 발견된 예비 주제들의 명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으며 참여자와 연구자는 주제와 최종 기술이 참여자의 경험을 정확하게 묘사했는지를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했다.

우연히 자가 발견한 몸살 병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서 나타난 주제는 유방의 몸무게를 자신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고 발견한 후 이웃이나 동네사람과 집안식구로 부터, 유방암에 대한 경험담을 듣고 보고하면서 여러 종합병원을 찾는다. 참여자들은 정확한 건강정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과정에서 시간을 지연하였음을 표현했다.

“우연히 아기가 젖을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아프게 느껴져서 짜봤어요. 젖이 나와요. 그리고 피가 나오잖아요. 그때 남편도 없었고 서울에 갔고 누구한테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와 내과를 흔다고 민하다가 갔어요. 약을 먹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동네 아줌마가 고름이 나왔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다시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요 봉우리가 잡혔어요.

몽우리가 잡혀서서 개인병원을 갔었어요. 개인병원은 흉부외과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과를 가야할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흉부외과를 먼저 갔어요. 가슴이니까 흉부외과인가 보다하고 거기 가서 X-ray랑 다 찍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보니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면서 그것은 몽우리니까 그냥 따스한 물로 시프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수건에다가 한 일주일 그렇게 병원을 다녔어요. 시프를 해야하니까요. 거기에서 치료해주고 하더라고요.”

“유방암 걸려서 아픈 언니가 있다고 해서 보러 갔었어요. 가서 보니깐 그 언니 가슴이 진달래가 활짝 피어가지고 아주 만발한 것처럼 유방 색깔이 회안한 색으로 예쁘면서 곱더라고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인가. 왜 그러냐고 물어 보니까 친정 오빠가 이상한 환약을 종양에다 주입을 시켰대요. 그것에 뜸을 댔더니 성이 나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토끼뼈 꼬리같이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는 것 같았는데, 남편의 권유로 병원에 갔다. 의사가 암은 아니고 비지

밥이라고 하여서 날아갈 듯이하고 집에 왔으나 한달 뒤에 생각보다 커져서 다시 병원에 갔을 때는 암이라고 했다.”

질병의 뿌리 추구-천벌, 박복한 여인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참여자들은 자신의 병의 원인을 자기 내부나 외부적 원인을 탐색함으로써 찾고자 하였다. 이처럼 병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그 원인에 대한 원망스러움을 표현하였다. 자기 내적인 면에서는 참여자 자신의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성격, 나쁜 피를 타고난 천성, 마음을 잘못 먹어서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하는 등 병과 자신과의 인과성을 설명하였다. 자기 외적인 면에서는 시부모, 시동생, 그리고 남편, 입양아로부터 스트레스, 음식물의 잘못 섭취 등을 들어 설명하면서 원망스러워 하였다.

“성품이 온유하거나 착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진실로 착해져 있어요. 그 마음속에 숨은 것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서도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착하고 온전히 제대로 의인처럼 살수 없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나쁜 것을 안한다 하면서도 하고, 그 중에 인제 나 같은 사람보다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은 병을 안 얻고,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옛날부터 방황 막 했으면서도 그래 왜 나만 이렇게 되나 그것은 내가 잘못으로 온 것이니까 함부로 했다는 것이 생각하면 내 잘못이지 식구들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마음을 잘못 먹고 좋은 일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거다 생각하고 한심하고 그럴때가 있어요.

저는 항상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모든 것이 내 잘못으로 내 탓으로 내가 잘못해서 내 병을 잘못 키운 것이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신앙심이 좀 강한 편에 속한데 아픈 걸로 인해서 인과를 믿게 되고 제가 육신을 바쳐야 할 일이 있다면 달게 받겠어요.”

“예민한 사람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랑 살다보면 화가 나도 참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은 참아서 만도 안되는 것 같아요. 풀때는 확 풀어 버려야 병이 안 생기는데, 못 푸니까 그런 거 같아요. 살면서 어려운 그거를 지혜롭게 넘기는 것이 병이 안 걸리는 원인이라고요. 그러기 전에 제가 수술, 저의 남편한테 매일매일 화를 냈더니 걸어가면서 왜이런가 왜이런가 너무나 화를 내니까 이렇게 화가 나요. 화 안낼 일인데 화가 나요. 괜히 못참겠어요. 근데 이게 말도 신경질적이고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갑자기 유방암이 내 못된 성격하고 내 혈액형 안들어 봤어요? X-ray도 남보다 많이 찍었지. 애기도 많이 띠었지. 고기도 많이 먹었지, 성질도 급하지 이런 것이 다 나쁘지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처음에 그때 저는 항상 음식같은 것

도 저는 고기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야채, 오이, 상치 같은 야채를 즐겨 먹거든요. 고기는 한번 두번 먹으면 질려서 못먹어요. 어떻게 하다가 저 같은 경우 암이 걸렸는지, 피임약도 안먹고요, 애기는 두번 유산했지요.”

“저도 중신을 했어요. 전혀 시대 시동생도 제가 전혀 상상했던 것과 틀려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줬어요. 게다가 남편이 술을 잘 먹어요. 늦게 들어오고 밤12시, 그런 시부모하고 같이 그런 점에 스트레스를 확 풀어야 하는데 내성적이니까 친정에 가서도 내가 아가씨 때랑은 고기를 잘 먹지 않았거든요. 거의 촌에서 살아서 된 장국에 야채 그런거 촌에서 나는것 뿐하지 뭐. 그런거 사다가 그거를 먹고 했는데 그랬는데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나까 음식인지 환경인지 한쪽에서는 유전이라고 하지만 유전도 아니면 이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에서 오는것 같아요. 지금 성격이 밝았거든요. 우리 아저씨나 나는 굉장히 권위적이지는 않은데 남한테 굉장히 친절한 성격이에요. 싫어요 웃을 수 있는 저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굉장히 분명한데 거기에다 맞추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애기 아빠는 그때 좀 의로웠었나봐요. 그때 그래서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을 일년 정도 있다 알았어요. 애기 아빠가 워낙 착하니까 상상도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온 갈등이 최고로 격정스럽더라고요. 집을 안들어 오니까 그러면서 애기도 없다가 애기를 처음에 친정엄마, 이모가 갑작스럽게 데려왔어요. 게하고도 갈등이 세살되면서 데려왔는데 22개월 되었어요. 거기서 스트레스를 그러면서 이상이 있는 것을 게를 포용해주고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걸 못 받아 준거지요. 그렇게 고통스럽네요. 게 키우는데.”

“몸은 고달프고 정신적인 힘이 들었기 때문에 몸무게가 양노원에서 2년 근무하는데 몸무게가 빠지더라고요. 사람이 고달프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잘못 생각했어요. 빠지고 전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제가 원장님 모시고 일을 하는데 저는 실제 할머니들하고 부딪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실제하고 이론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불만이 쌓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라 하면 진보를 보일 수 있을텐데 저 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것은 필요없다고 깨어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2년동안 쌓이다 쌓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인 상태였든가봐요.”

#### 이별을 예감한 불안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유방절제술을 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소중한 인연인 아이들, 남편,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 부터 이별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될 수 있으면 남편에게는 아픔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며, 특히 주위의 동네 사람들로 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고 말하였다.

“애들 생각이 제일 많이 나지요. 애들이 제일로 불쌍하더라고요. 나야 살 만큼 살았잖아요. 애들이 이제 크는 애들인데, 내가 없으면. 할머니, 애들 아버지도 댄 여자와 결혼하면 되고, 애들이 제일로 불쌍해요.”

“신랑이 한번씩 늦게 들어올때는 내가 수술한 것 하고 연결을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신랑이 답답하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 수술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누워 있으면 별로 집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안든다고 집에 들어와 봐야 따분하거든. 아프다는 소리를 잘 안하고 살거든요? 오래간 만에 들어 오면은 우리는 화물차를 하기 때문에 집에 이삼일에 한번씩 들어와요. 아프다는 소리를 전혀 안해요. 배아프고 머리 아픈것 가지고는 이정도 가지고는 이제 죽을 병도 아팠는데 뭐. 아프다는 소리는 전혀 안해요.”

“진단 직후 자식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생기고 잠이 안오더라고요. 잠이. 병원에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그렇게 수면제를 주고 해도 잠이 안오고 막 정신력으로 버텨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여자 암수술 했다”하면서 몹쓸 병에 걸렸다 하는듯이 생각이 난다.”

#### 후원을 통해 본 자기확인

참여자들의 후원자로는 의사, 배우자, 친정어머니, 동료로 나타났으며 주지할 사실은 간호사로 부터의 후원이나 유방절제술 후의 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은 기억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주위사람들의 후원을 통해 물질적, 정신적 위안을 얻고 나아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서술하였다.

“남편-배우자의 후원이 많았어요.

가장 그래도 옆에 계셔서 제일 좋은 것은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주는 거죠. 어떤 경우 나이드신 경우에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동기들이 소꼬리 삶아 가지고 물내어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봉투를 놓고 가고 그걸 모아 놓고 보니까 제가 일년동안 쉬며 항암치료 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되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단지 의사 선생님 말씀 믿고 싶은 심정이죠.”

“간호사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었어요. 왜냐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집에 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자기만이 혼자 당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항암주사를 맞을 때나 수술을 했을 때 병원에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어요.”

#### 병혼을 통해 본 자기 상실

유방절제술을 하고 난 뒤의 참여자들은 즉시 상처를

보지 못하고 한참만에 볼 수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더 이상 목욕탕이나 온천에 갈 수 없음과 남편에 대한 죄책감, 서글픔 그리고 항암 치료로 인해서 오는 탈모증, 그리고 주사 부위의 느낌은 망가져 버린 듯한 쓸모 없는 기계와 같음을 진술하고 있다.

“처음에 목욕탕에도 다갔다. 제일로 걱정이 목욕탕이었어요. 목욕탕 가는 것이. 지금은 집에서 하지요.”

“제 자신이 한쪽이 없다는게 남편한테 죄책감이 있어요. 친구들과하고 모임에 가도 오히려 내 마음속에 그렇더라고요. 어디 갈려고 해도 온천이라도 갈려고 해도 싫어지는 거예요.”

“항암제 맞느라고 얼굴이 붓고, 괜히 남들이 뭐라고 안해도 주빚겨려져요. 가슴을 더 쳐다보게 되고. 목욕탕도 가기 싫고 옷 입는 것도 불편하고. 아주 빠듯한 느낌이 와요. 좀 무지근한 통증도 있는 것 같고 입원실에 가서 보니까 아수술을 했구나 내 몸의 일부가 어디가 좀 없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15일만에 가슴 흉터를 보았어.”

“14일만에 보게 되었는데 학교 다니는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어떤 여자분이 흉터라고는 무릎에 요만큼 밖에 없는 그분이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몸에 큰 흉터가 있게 되겠다고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는 그때는 무심으로 받아들였고 또 대수롭지 않게 받아 들였는데 그 수술한 것을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번뜩했는데 이것을 말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14일만에 봉대를 풀고 거울에 비쳐보니까 이 상처가 가슴에 늘려져야.”

“걸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깐 나만이 갖고 있는 아픔이 되겠지. 여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마음의 서글픔 같은게 오더라고요. 주사맞는 때는 손이 새까매 가지고 타다 남은 장작 같았어요.”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주사 2번째 맞으니깐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우리 같이 긴 머리가 빠지니까 기분이 참 나쁘네요. 아 내가 이런 몸이 되었구나 확인하면서 이렇게 여자다운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 요양원 가면서 치료를 임하기로 하니까 두번째 주사맞고 머리가 빠져서 섭섭한 기분이 느껴졌는데”

#### 항암제 투약으로 인한 극한 상황-악몽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항암제 투여를 받았을 때 ‘악몽’ 속에서 해매는 자신을 발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정신이 이상해지고, 전기고문, 불면증,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느낌을 생생히 기억하였다. 수술은 그런데로 견디었으나 항암주사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였다.

“주사를 맞다보니까 막 떨려요. 기운이 없으니깐. 육체월을 맞으라고, 약도 줄여 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직 젊으니깐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이상해져서 나는 안 움직이고 싶은데 저절로 움직여서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밥도 못먹고, 토하고 누었다 앉았다가 안절부절 그래서 주사맞고 소리를 치고, 정신이상이 되어서 막 돌아다니는 것 막 소리라고 지르고 싶어요.”

“방사선 치료할 때는 아무 그것이 없었는데 항암제 맞을 때 그렇게 죽겠더라고요. 항암제 1년동안 맞는데. 특별하게 어디가 아프고 그런건 없는데 사람이 그럴 때 미친다고 그러지요. 그런 심정이예요. 미치는 심정이죠? 괜히 불안하고 잠도 안오고 수면제를 항상 먹어도 잠이 안와요. 한숨도 못자고 항암제를 맞거든요. 그리고 구토증이 일어나고, 항암제 맞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너무나 공포에 마음까지 불안해요. 주사를 맞기 전부터 불안하고 떨려요, 몸이. 그래서 잘려고 노력해요. 자고나면 괜찮아요. 주사를 맞고 잠이 안왔을 때는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첫날 주사를 맞는데 잠이 안오니깐, 왜 이렇게 온몸이 떨리는지 주사 방울 한 방울씩 들어가는데 100시간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안 맞아 본 사람은 몰라요. TV에서 볼때 전기 고문할 때,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까지도 쥐가 고양이 앞에서 공포에 떠는 거예요.”

“온몸을 다 파괴시킨다고 그러던데, 유리 하나에 파리가 앉았다 해봐요. 파리를 잡으려고 망치로 파리를 쳤다고 해봐요. 파리는 죽는데 우리는 깨져가지고 우리 몸이 세포는 줄어 들지 않은 상황인데 온몸이 다 박살나는 것이지요. 온몸의 기능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지요. 항암주사 맞으면서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다섯번 맞았는데 주사를 맞으니깐 정신이 있잖아요. 나는 침대에 누워야겠다고, 누우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신이 저기 천정만큼까 있는 것 같이, 몸하고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거 같아요. 온몸이 뒤틀리더라고요. 비디오 같은거 보면 전기 고문하면 떨지요? 그렇게 몸이 떨려요. 고문하는거 같이 한 동안 밤이 무서웠지요. 주사 맞고 밤만 되면 괜히 주사 안맞아도 몸이 떨려요.”

“저는 주사를 두번째 맞았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증세가 주사맞을 때는 점점 힘들어 다른 사람들은 2시간-4시간 정도 맞아야 되는데 8시간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빨리 들어가면 토하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말조차 할수 없는 기분이 오니까 살살 달래가지고 주사를 길게 느긋하게 맞으니깐 좀 괜찮다 싶은데 그때 움직이면 토하고 혈관이 쇠퇴해 가지고 이렇게 죽어 버렸어요.”

#### 삶의 태도 변화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대부분의 참여자는 종교를 찾게 되고 또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종교심이 강렬하게 마음에 와 닿음을 표현했고, 또 삶의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의 폭이 넓어졌으며 그리고 결국 주위의 후원을 받을지라도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은 자기 혼자임을 자각하고 있었다.

“교회를 나갈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교회라는 것에 전혀 취미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믿고 인제 그때 시간이면 좀사그라 드는 것 같아요. 좀 사그라들

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확실히 내가 하나님한테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니까. 오늘 죽든 내일 죽든 간에 하나님한테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매달리고 싶었어요.”

“원래가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뭐야. 먹고, 입고, 살려고 하는 거지. 옛날에는 먹는 거에 신경쓰는 사람보면 뭐 저렇게 유치하게 살아 다른데 신경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 사람이 지혜스러워진 것 같아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절대적인 것 같아요. 얼마나 교만하고 이걸 꺾어 줘야 해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도 있어요.”

“명랑했었는데 지금은 성격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천방지축 까불고 그랬는데 지금은 말도 없고 웃음도 별로 없고. 마음이 저는 많이 온유해졌어요. 옛날에는 화가 나면 그대로 화를 냈었는데 그게 요즈음에 와서 화를 내도 그럴 수도 있지 뭐하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요. 옛날보다 많이 온유해졌어요. 옛날같이 막 튀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더 생각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그때는 두려움, 무서우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무 살아가면서 너무 내 몸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지나온 것들을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해 보고, 지금도 막 하나님을 믿으면 완전히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전부 맡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분한테는 지경다가도 지경지 않고, 제일 큰 힘이 되지요.

나쁜 점을 고칠려고 하고 순종을 할려고 그래요. 그 말씀이 훌륭한 너무나 내가 안할려고 하긴 하지 노력하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가는 것 같애.

속으로 참 감사하다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어서 속으로 감사하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는 교회도 안 믿고 그랬는데 하느님이 찾고 싶고, 한 번만 살려 달라고 다음 부터는 제가 열심히 잘하고 한 번만 살려 달라고 살고 싶다고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왔어요.”

“지금 다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할려고 하니깐 나도 구태여 남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일 내가 고쳐야 할 것은 애들한테 신하게 하고 욕도 않고.”

“살아 보니까 사람도 돈도 필요없는 거예요. 돈 많고 그런 사람은 좋다고 할런지 몰라도. 이렇게 여러번 아파서 죽을려다 살은 사람한테는 건강주는 것이 제일 큰 복이고 다음은 적당히 밥 안 굶고 살 정도로 하나님이 주는 복중에 가장 좋은 복이라고 생각해요.”

“유방 수술하고 나서 머리 빠져 가지고 그린거예요. 저 그림이 연일이 물에 떠있는 그림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분위기를 제가 희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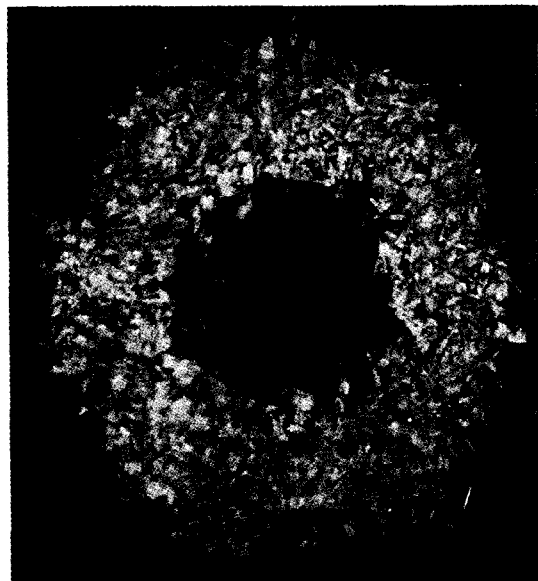
있는 마음 상태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깐 마음이 편하고 기쁜거예요. 이 아픔이 나쁜 것만이 아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삼백명이라고 하는 문명객들이 나한테 다녀가면서 격려를 주고 있는 대도 내가 힘없이 아파서 쓰겠느냐. 어떻게 해서 앞으로 잘 버티고 잘 낫는게 보답하는 것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런 그림은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림에 나오지 않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저 혼자 문을 잠가놓고 구성염불을 하고 염불을 소리 내면서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신앙적인 것을 해가지고 나 혼자 연출하는 거예요.

“글도 쓰면서 제 자신을 돌아본 계기가 된 거예요.

울기도 참 많았고 울음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해서 한 울음이 아니예요. 진리한테 대해서 향한 울음이지요. 달게 받고 일을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즈음 일원상을 제가 만든 작품이에요. 꽃잎으로.

꽃잎으로 지금 만든 작품이에요. 꽃 하나하나 놓으면서 이 꽃잎이 여러개 모이니까 일원상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모두 될 수가 있구나.

아 내가 보잘 것 없고 우주에서까지 우리 인간에게 혼자 사는 인간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나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소중함이 퍼져서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



연구참여자의 작품

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아픔으로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힘있는 사람이 되고 당당한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에 자만했던 마음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기도를 일단 하는 걸로 마무리 했고 그동안 제가 세상에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사는 삶 가운데 나는 마음 닦는 공부를 직업으로 하며 살고 있으니 자다가 생각하여도 기쁘고 또 기쁨의 일이다. 맑아도 맑아도 맑아지지 않은 것 같은 그마음속을 들여다 보면서 힘들어 하고 괴로워 하며 기뻐하기도 하지만은 자체가 이쁘고 고마운데다 만수(만수: 마음을 닦는다는 법이 있어요)라 하고 또 하고 또하다 보면 날 보는 능력이 들어나리다. 그러기까지 내 어둠의 껍질이 벗겨지고 녹아나며 씻겨져서 무수한 아픔 가운데 더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리라.

깨끗하고 고귀한 생각과 의지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키우면서 글을 쓰는 분들이 대부분 업장의 껍질이 벗겨진다" 그림을 찾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고 붓독을 잘 해요. 그러면 참 기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괴롭고 수치스럽고 그랬는데 그것도 일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착하고 깨끗하고 예쁘게 살게요. 이렇게 중얼거리다보면 제 자신이 정화가 되는거요.

그런 작업이 끊임없이 되고 있고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그림이 마음에 든다든가 잘 나왔든가 색깔이 좋게 되었다든가 하면 그런걸 앞에 놓고 대중사님 합장을 절하고 저만의 동작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작업이 또 있어요. 보면 이렇게 하다보면 마음이 정화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제가 업연의 껍질이 이렇게 녹아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온화하고 부드럽고 공부가 잘 되는데 밖에 나가서 보면 말하다가 말이 거칠게 튀어나오고 본의 아닌 행동이 되어질 때 마음 아프고 힘들어 한다는 것이 한부분이거든요.

그런것들이 말까지도 잘 부드럽게 잘해지는 내가 되었으면 이쁘고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어요. 괴롭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것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전에는 친구가 전화를 해도 나를 즐겁게 하지 않았으면 별로 고마움을 못느꼈다. 이제는 전화만 주면 '고맙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나는 남들은 마치 1+1=2인 것 처럼 평가하고 살아왔으나 내가 아프고 나니 이해가 가요. 친구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 나는 친구가 화를 내지 않고 사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했더니 화를 내면 나만 몸이 축이 나므로 그냥 산다고 했을때 그 당시 나는 친구가 이해가 안갔으나 인제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요.

옛날에는 학벌도 안좋고, 잘살지도 못하면,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했으나 인제는 그런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묻습니다."

#### 홀로임의 재발견

유방절제술의 체험 과정에서 참여자는 결국 삶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후원을 받으나 자신 홀로 살아가는 과정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저희 남편은 좀 어떠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프다고 하면은 어디가 아프냐고 슬쩍 넘어가지요. 전혀. 나 혼자서

다 참아야 되잖아요.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요. 나와서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천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보면 그 뭐라하나 법이 하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그 중간에 공포에 질려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왔는데, 무시무시한 다리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가는데 그 무서움은 바로 그 다리와 외부에 있는 무서움이 아니었다. 자세히 그 모습을 들여다 보니까 바로 자기 안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꼭 내가 그런것 같더라구요. 그때 고통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 주사 맞았을 때 수술했을 때는 아무것도 주사 맞았을때는 밤만되면 떨었으니까 무서워서. 그 무서움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애. 남편이나 외부 사람이 아니라 그 무서움이 내 자신과의 무서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러면 자기 화가 나가지고 감정을 내가 조정해가지고 옛날에는 그걸 못했지만 내가 그러니 내 자신을 어기는 것은 병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고통이 있으면 자기 혼자 꼭 참아야 하는 것이지."

"그날따라 여러가지 상황이 되어 가지고 치료 온다고 인턴이 와서 치료를 하더니 봉대를 감지 않고 그대로 놓고 가 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가슴에다 봉대를 감는 동작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먹는 것도 이제는 아끼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껴두고 할 것이 없고, 나의 건강 관리만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삶의 최고가치는 건강임을 인식함

참여자들은 삶의 가치관 변화와 홀로임의 인식으로 자가건강관리와 관련된 민간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건강관리책자에 관심도가 높아졌다. 양약과 더불어 한약을 같이 겸용하고 있었으며, 약물을 복용할 때는 더주의를 기울인다고 서술했다.

#### (식이요법의 변화)

"인삼 같은 것을 많이 먹으라고 해서 많이 먹었고, 그런데 음식도 똑같이 먹고 똑같이 소화시키잖아요. 암환자니까 가려먹어야 하잖아요."

"알로에는 애써 구해서 먹었거든요. 속이 편해요."

"왜 내가 고기를 자주 많이 먹느냐면은요 항암제 맞을 때 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피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소화잘되게 해서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름만 다 걸어내고, 기름기 다 걸어내고 먹고 있는데 고기를 먹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러길래. 먹으면 또 재발하는 것 아니라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왜냐면 들어오면서 방부제를 많이 넣

는데요. 아프고 난 뒤부터는 조미료를 전혀안써요. 멸치같은 것 다시내서 찌개 끓이고 하지. 이제 먹는 음식에 내가 고기를 안먹었어요. 빈혈이 철분이 다 정상이었다고.”

“식이요법이 너무나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병원 가서도 진단내린 것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거 보면 먹는게 그렇게 중요한거 같아요.”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도 한식 부페같은 거는 먹음만 하더라고요. 상추, 보리밥에다 된장,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절대 안 먹었거든요 기름에 튀긴 음식이 제일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만날 때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요. 밥도 현미로 바꾸고 인스턴트 식품도 안먹고 녹즙을 하루에 세 끼를 다 먹었어요. 그렇게 해도 방사선 치료 받고 항암주사 맞아도 그랬는데, 요즘은 아침만 먹어요. 즙을 하얀 밥도 먹고 그러니까 감기가 한번 세번 인가 걸렸는데 지독하게 열이 목안이 밤새도록 약을 먹어도 안 듣더라고요. 녹즙이나 현미 인스턴트 식품, 고기는 아예 입에도 안 대거든요. 그런것들을 하면 오히려 몸이 강해지는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채식을 해요.”  
돌미나리는 사다가 살짝 데쳐서 해 먹지요. 돌미나리는 살짝 데쳐서 무쳐먹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돌미나리를 먹고 죽어가는 암 세포를 보여주던데요. 미나리가 피를 맑게 해준다는 소리를 듣고, 피가 혼탁하기 때문에 병이 걸린다 싶어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생솔일을 아어서 먹고 돌미나리로 나물 해먹고, 우영을 6관씩 사다가 썰어서 먹지요. 냉이 사다가 살짝 삶아서 먹고 채소라는 것은 다 먹어요. 밥비벼 먹고, 우영, 멸치, 들기름 다 짜다가 넣고 고기는 안 먹으니까 생선을...”

#### (건강관리 관심도의 변화)

책 / 민간요법, 보약, 약 복용의 태도 변화

“요즘은 감기 시초에 일찍 병원을 찾아요. 옛날에는 감기 걸려도 집에서 나올려고 노력했어요. 수술 하기 전에는 땀을 빼거나 요즘은 증상이 있다하면 빨리가서 주사 맞는다는가 하고 집에 와서는 한증도 하고 같이 해요. 양약만 하는게 아니라 한방약 끓여 먹고 한데든가 특별하게 해가지 않으면 다해요.”

“부황하고 나서 부터는 깨끗해요. 그전에 부황하기 전에 엄마들이 얼얼이 이상하다고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봐도 까맣더라고요.”

“건강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내가 3년째 계속 보아요. 그렇지요. 건강관리를 내 스스로 무엇이 좋다는 것을 다 알면서 다 해서먹고 채식을 책에 좋단니까 안현필 선생님이 여러가지가 좋고 어떻다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감기가 걸릴때 거려서 힘들어도 약 안 먹었어요.

생각하고 모과하고 끓여서 먹고 무우를 날로 먹고 껌질을 있게 먹어야 좋대요. 껌질째 먹어야 양분이 많다고 배웠거든요.”

“느릅나무, 참빛나무, 수삼백뿌리를 데려먹으면 좋다고 해서 계속 데려먹고 있습니다. 에어로빅가서 지금도 운동을 하고나면 좋고 샤워를 하고나면 기분이 좋아요.”

#### 살얼음을 걷는 듯한 삶의 나날들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순간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 들어서 확신된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재발할까봐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지요. 그렇다고 금방 재발이 된 것도 아닌데도 항상 마음에 후시라도 요즘은 어다가 조금만 아프면 이게 어떻게 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가요. 뭐라고 할까 낫는다는 확신이 없어요. 한숨을 자주 쉰다.”

“죽음만” 생각하고 운명이다. 그러나 두렵기만하고 재발만 안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가. 죽음만 생각하고 물론 수술을 하고 바로 죽지는 않겠지만, 마취 깨어나지 않으면 죽고, 또 재발하면 죽음이 왔구나. 결국은 나한테도 죽음이 있구나 「사랑과 이별」의 연속극에서의 선주, 여주인공과 공감할 많이 느낀다. 두려움, 우울증, 그러나 왜 그 제목이 “이별”인가? 혹시 그 여자가 죽지 않나하고 걱정을 하곤 한다.”

#### 4.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글쓰기

글쓰기는 연구의 본질이며, 연구과정에서 최종단계이다.

벤 매넨(1990)은 어떤 글쓰기가 논리적으로 강력하다면 그때는 그것이 어떤 명료함을 요구한다고 믿었다. 소위 말하는 그때 그것은 살아있는 경험을 설명하는 것, 의미있는 구조 또는 좀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 겪은 경험에 대한 ‘상호주관적인 이해와’ 현상들을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작업, 그리고 그 이해정도를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을 요하고, 묘사와 글 쓰기를 잘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며, 묘사와 글 쓰기를 통해 의미를 분석하고, 추출하고 선택할 필요성이 있고, 언어의 정교하고 민감한 숨씨를 대신할 대체물은 없다.

연구자는 자료로부터 주제를 분리하고 생활세계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남김없이 밝히는데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몇번의 면담을 옮겨냈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를 수행한 것을 글을 쓰고 그리고 다시 고쳐쓰도록 도와주었다.

본 연구에서 유방절제술을 경험한 여성들의 중년은 만물을 성숙해서 거두어 들이는 숲의 시기이며, 외적인 면보다는 내적인 수양을 쌓는 단계로써 인생주기로 볼 때 제 2 성장기로 표현되는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보다는 남편, 자녀, 집안식구들을 위해서 살아왔고, 집안살림의 늘어남에 정력을 쏟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제부터는 또다른 무엇으로 다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안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날 우연히 알게 된 유방의 조그만 몽우리가 “암”이라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듣는다. 무지로 인해서 정확한 진단을 알게 되는 데는 또 다른 긴 시간이 흐른다. 그리고 몹쓸 병이 생긴 것은 지질이기도 타고난 복이 없어서 또는 자신의 지난 삶에서 죄를 지어서 받는 결과로 옛부터 전해오는 하늘에서 내린 벌로 받아들여야 하다면, 또 왜 자신에게 이런 병을 앓게 하는가 라고 물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더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신 같은 존재로 믿고 싶은 의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슴을 뚫 패이게 도려내는 아픔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아서 손이 자꾸 가슴을 더듬어 보지만 수술 한참 후에 유방이 없음을 깨닫고는 차라리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을 하고 순간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느낀다.

참여자마다 온전신을 휘둘러 치는 것 같은 악몽을 꾸고 나서도 개운치 않은 항암치료를 받는다. 혹시, 자신의 몹쓸 병과 유방을 절제하므로써 주위의 가족들과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가 에워싸여 있음을 경험한다.

그러나, 항암치료를 받으면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다는 말을 들을사이도 없이 그저 ‘머리카락만 빠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일 뿐이다.

모든 참여자들은 수술을 받은 것 보다 도려낸 가슴 보다 항암치료 같이 더 힘든것을 겪지 않은 이들은 할말이 없다고 한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그래도 혈연으로 맺어진 친정부모 그리고 남편의 보살핌으로 자기를 확인 한다.

치료과정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려운 삶의 문턱을 넘어섰다 싶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자신의 순간순간 살얼음위를 걸어가며 사는 “삶과 죽음”의 골레를 본인이 벗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고는 종교를 갖지 않고 있던 사람은 종교를 찾아가고, 그리고 더욱 열심히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살 것을 약속한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데로부터 이별을 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으나, 본인의 건강관리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민간요법을 통해서 보고 듣는대로 만들어서 먹고, 살생을 요하는 생명중인 것 보다는 야채를 많이 먹고, 평소 때보다 더 한약을 달여먹고, 부황을 뜨고 한다.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책을 관심있게 읽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대중매체인 TV의 주부들을 위한 아침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시청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대와 지역의 프로그램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은 아프기 전까지는 삶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으나, 아픔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은 삶의 중앙에 위치해져 있었음을 자각한다. 그리고, 남은 생은 자기 자신만이 이겨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홀로임을 깨닫고 순간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나날들을 조심스럽게 이어나간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간호사로부터의 교육적인 프로그램, 또 인간적인 따뜻한 보살핌에 관해서는 기억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연구 과정동안 알 수 있었다.

### Ⅲ. 연구결과 및 제언

유방절제술을 경험한 중년 여성의 체험의 본질을 묘사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벤 매년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4단계의 연구과정인 체험의 본질에 집중, 실존적 조사, 현상학적 반성 그리고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를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6명의 한국 중소 도시에서 살고 있는 유방절제술을 체험한 중년 여성으로서 1994년 2월 부터 1, 2차 심층면담을 통해서는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들이 체험한 본질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우연히 자가 발견한 몹쓸병, 질병의 뿌리 추구-천벌, 박복한 여인, 이별을 예감한 불안감, 병흔을 통해 본 자기 상실감, 후원을 통해 본 자기 확인, 항암제 투약에 따른 극한 상황-악몽, 삶의 태도 변화, 삶의 최고 가치는 건강, 홀로임의 재발견 그리고 항상 살얼음을 걷는 듯한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현상학적인 연구에서 한 개인의 경험은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의 내용 안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현상학적 연구의 발견이 자체적으로 암시로 가득차 있을 지라도 간호 수행, 간호 교육 그리고 연구, 정책의 분야에 더 많이 덧붙혀질 수 있다.

간호 수행에서 간호사들은 유방 절제술에 관한 체험 연구를 통해서 나온 의미발견을 대상자를 간호할 때 대상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그에 맞는 간호

를 하므로써 진정한 전문적 후원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간호 교육 측면에서는 간호 학생들은 연구 결과를 토의 함으로써 수업 또는 임상을 통해서 연구 결과와 실질적 사례연구(case study)와의 관계를 비교 하면서 더욱 창의적인 간호 중재를 해 보도록 장려한다. 간호 연구 측면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중년 여성의 유방절제술에 연관된 체험 연구를 함으로써 체험의 본질을 탐색하고 이론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 간호 정책 측면에서, 중년 여성을 위한 유방암과 관련된 예방 차원에서 조기 발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술 전·후의 대상자, 가족을 위한 상담등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고 더 나아가서 유방절제술을 다루는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더욱 전문적 지식 그리고 태도, 기술을 갖추고 간호상담을 제공하는 후원인이 되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김도형(1994). 비비비 서울 : 자유문학사.
-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은(1983). 인간발달과정. 서울 : 전당사.
- 김태숙, 정면숙(1984). 유방절제술환자의 퇴원후 신체상과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4(2), 75-83.
- 김태윤(1993). 공학교수가 웬 시집? 서울 : 에드텍.
- 노만수(1994). 건강한 유방, 아름다운당신. 서울 : 동아일보사.
- 박효경(1986). 유방절제술환자의 퇴원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간호학 석사 논문.
- 시모쥬 아끼꼬, 변태관역(1992). 30대 여성이 알아두어야 할 일. 서울 : 신디출판사.
- 신달자(1993). 성남감속의 여자. 서울 : 자유문학사
- 신숙경, 박혜인(1993). 중년기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계명대학교, 과학논집. 19호.
- 여경수, 이정효, 임현목(1993). 유방의 임상적 고찰. 외과학회지, 45(1).
- 오세민(1993). 외과학회 추계연수강좌. 동아일보.
- 유한영, 안윤옥(1985). 유방암의 원인, 대한의학협회지, 35(4), 474-478
- 윤도부(1993). 50대는 미니Aids현상, 조선일보.
- 이원희(1992). 한국중년여성이 경험하는 갈등과 대응양상. 성인간호학회지, 4(2), 136-146.
- 이현수(1985). 이상행동의 심리학. 서울 : 대왕사.
- 정방자역(1988). 성격이론과 임상실제 : 한국중년여성의 identity 탐색. 서울 : 이문출판사.
- 정복례(1991). 유방암 환자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Papalia, D. E, Olds, S. W & Feldman, R. D.(1992). 인간발달(정옥분역). 서울 : 출판사
- 조용진(1991). 우리몸과 미술문화 서울 : 미술교육사.
- 최덕신(1992). 중년기 주부의 사회관계망과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 Ali, N. S., & H. Z., Khalie(1991). Identification of stressors, level of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coping effectiveness among Egyption mastectomy patients. Cancer Nursing, 14(5). M.
- Lindbergh, A. M(1955). 바다로 부터의 선물(이일환역) 서울 : 언어의 세계.(1992발행)
- Barritt, L. S.; Beekman, T., Bleeker, H., & K. Mulderij(1990). 교육연구와 현상학적 접근(홍기경역, 1990) A handbook for phenomenological research in education. School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서울 : 문음사.(1993발행)
- Brookfield, S.(1990). Conduction Interviews. Unpublished paper. center for adult Educ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Cole, P.(1980). Major aspects of the epidemiology of breast cancer. Cancer, 46 : 86.
- Davis, A. (1978).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in nursing research. In N. Chaska(Ed.) The nursing profession. New York : Davis. Co.
- Hailey, B. J., Levine, B., & B. Hogan(1988). The mastectomy experience : Patient's perspectives. Women & Health. 14(1) NY : The Haworth Press.
- Harris, J. R., Hellman, S., Henderson, I. C. & D. W. Kinne(1991). Patient rehabilitation and support : Breast Disease. Philadelphia, JB. Lippincott.
- Havinghurst, R. J.,(1978). Aging in Western societies. In D. Hobman(Ed.), The social challenge of aging. New York : St. Martin's Press.
- Husserl, E.(1952). Ideas : General Introduction to Pure Phenomenology.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Merleau-Party, M.(1964). Sense and nonsense.

- Evanston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Munhall, P.(1988). Ethical considerations in qualitative research.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0(2). 150-162.
- Munhall, P.(1990).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workshop. New Orleans.
- Northouse, L. L.(1989). The impact of breast cancer on patients and husbands. Cancer Nursing, 276-284.
- Diler, C.(1982).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in nursing research. Nursing Research, 31. 178-181.
- Paterson J., & Zderad, L.(1976). Humanistic nursing. New York : Wiley Biomedical publications.
- Sandelowski, M.(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3), 27-37.
- Scott, D.(1982). Ethical issues in nursing research : Access to human subjects. Topics in Clinical Nursing, April. 74-83.
- Sobel, D.(1979). "So that others may live," Omni, 2 (3). 52-58.
- Spiegelberg, H.(1984). Phenomenological movement : 최경호(1992) 역 현상학적운동. 서울 : 이론과 실천.
- Van Manen, M.(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New York. Sunny press. 신경림, 안규남 역 (1994). 체험연구. 서울 : 동녘.
- Wong, C. A., & L., Bramwell.(1992). Uncertainty and anxiety after mastectomy for breast cancer. Cancer Nursing, 15(5) 363-371.

- Abstract -

###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and discovery of meaning in mid-aged women's experience of mastectomy

*Shin, Kyung Rim\**

This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used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discover meaning in mid-aged women's experience of mastectomy. The ultimate aim of the inquiry was to discover the essence of mid-aged women's experience and promote understanding.

The study was guided by Van Manen's method for doing research. The method of inquiry included : turning to phenomenon of interest ; inquiring and investigating experience as it was lived rather than as conceptualized ; reflecting and analyzing essential themes which characterize phenomenon ; and describing phenomenon through art of writing and rewriting. Multiple strategies for data collecting were needed : in depth face-to-face interview ; analysis of women's writings ; artistic works ; and analysis of examples of phenomenon in art, literature, and drama. Although the experience was different for all of the women interviewed, essential themes of experience emerged ; Self-discovering of vicious disease, Divining punishment-unfortunate women, loss of self though the scar, a nightmare, change of life values and attitudes, rediscovering living alone, living through with fearing of death.

Findings from artistic and creative inquiry further validated findings and meaning discovered. The study illuminated meaning and simultaneously validated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process.

Essential themes for understanding women's experience, implications for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direction and need for continuing inquiry were identified.

**Key Words** : mid-aged women, mastectomy,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research.

\* Ewha Women's University.